

국립남도국악원 특별연수 참가 美교포 2세·입양아들

무더위도 잊은 '국악 삼매경'

지난 9일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영도) 연습실.

상모 돌리기와 소고춤 연습에 이어 사물놀이 강습을 받고 있는 제임스 버클리(21)와 마리 버클리(14) 남매의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다.

지난 6일 진도에 도착 후 강습을 받고 있는 남매는 생후 5개월 때 미국인 부모를 만난 한국 입양아들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이 해외교포 2세와 미국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주간의 특별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마련됐다.

한국국악협회 미주 동부지회(회장 박수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모두 18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와 달리 미국인 입양아 부모들도 함께 참여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교육 일정은 매우 빡빡하다. 가야금과 단소 배우기, 상모 돌리기, 사물놀이, 강강술래, 진도북춤 배우기 등 하루 8~9시간씩 강령군을 하고 있다.

연수에 참가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국악기를 배우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국악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욕심이 많은 참가자들은 오후 8시엔 정식 강습이 끝나지만 밤 12시까지 개인연습을 하며 시간을 아껴쓰고 있다.

특히 강습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국악원 진도당에서 공연도 예정돼 있어 연습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이날 공연에서는 사물놀이와 진도



지난 9일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해외교포 국악 연수에 참여한 입양아와 재미교포 2세들이 북춤 연습 도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악원 진도당에서 공연도 가질 예정이다.

사물놀이·북춤 등 '우리 것' 배우기 구슬땀

진도 어린이들에 영어 강습 ... 공연도 예정

북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진도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줬다. 매일 한시간씩 청소년국악문화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진도의 어린이들에게 영어 강습을 해 주고 있는 것.

진도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다는 참가자들이 먼저 제의를 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역시 입양아로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한나 보치니(16)는 "시골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 내 말을 알아들으면 기분이 좋다"며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국악 배우기는 참가자들, 특히 입양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진도를 방문한 제임스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었다. 방향도 많이

해 부모님 애를 태웠던 제임스는 한국에 다녀간 후 "다른 사람"이 됐다.

아버지 크리스 버클리는 "아들이 지난해 한국에 와서 전통문화를 직접 배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모습이 보기 좋아 올해는 딸 아이도 함께 데려왔다"고 말했다.

박수연 회장은 "국악연수는 입양아들 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들에게도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며 "농사 짓는 모습 등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진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韓·日 현대미술의 교감

에쁘고 회원·日작가 10명 20일까지 문화갤러리서 '다면체'展

12월엔 日 가와사키展

한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대미술의 흐름과 경향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실행위원회(대표 김종일·다카하시 마사루)가 '다면체(多面體)'를 주제로 '일·한 현대미술'전을 오는 20일까지 문화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사)현대미술 에쁘고 회원 등 광주 작가 10명과 다카하시 마사루씨 등 요코하마 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작가 10명이 참여한 다.

일본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다카하시 마사루씨는 이번 교류전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여행자'를 선보인다. '여행자'는 가방을 주제로 각박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의 갈망을 형상화한 것이다. 또 마코토 아오키씨 등 일본 작가



김종일 작 '다면체'

들은 다양하게 선연을 분할하는 작업과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감성과 삶을 묘사, 개성 넘치는 작업 세계를 선보인다. 한국 참여작가는 이규환 유희자 윤해욱 조현 이석원 이병재 윤병학 이

창호 박미정씨.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실행위원회는 오는 12월 일본 가와사키 시민미술관에 '일·한 현대미술'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3-6969. /윤경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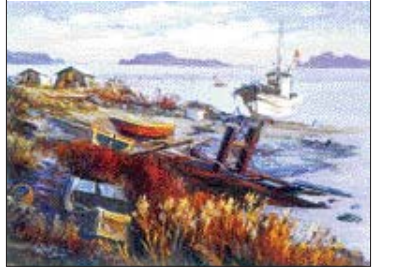
목우회 광주지회전

14일부터 9월30일까지 고흥군 남포미술관

목우회 광주지회(회장 이우진)전이 14일부터 9월30일까지 고흥군 남포미술관에서 열린다.

남포미술관 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

품들이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정승주, 김신석, 김재형, 김충근, 김길성, 조규일, 노의웅, 서봉환, 김종욱, 이강하, 박문수, 이우진, 김재균, 유태환, 김광현, 이신자, 김영순, 김영화, 최강희, 정홍기씨 등



이우진 작 '갯내음'

이다. 문의 061-832-0003. /윤경기자 penfoot@kwangju.co.kr

신뢰와 감동의 여행사 코오롱세계일주 광주점. www.hikolon.com 문의전화: 062-373-3322. 시애틀리크루즈 산동성패키지. 맹자·공자유적지/태산 등경 5일 - (월/토) 349,000원~

광주출발 국내여행 제주도 2박3일. 알뜰패키지 169,000원~. 실속잡수합투어 189,000원~. 금강산 관광 2박3일 457,000원~. 유렵 실속패를 위한 'BIG SALE'.

광주출발 해외여행. 상해/항주/수주 - (수,토) 4일 369,000원~. 상해/항주/장계 - (수,토) 5일 799,000원~. 상해/항주/항주 - (수,토) 5일 599,000원~.

광주출발 전세계 상품. 새계림(영송온천,리강유람) 4일 749,000원. 새계림(영송온천,리강유람) 5일 999,000원. 새계림 골프 5일 1,050,000원.

금주의 동남아 HOT SALE. 파격 할인 (특가). 보라카이 4일/5일 399,000원. 마닐라/파타야/타이/하트밸리 5일 499,000원.

영화안니. Happy Time. 영화안니. Happy Time. 영화안니. Happy Time.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터민대학사거리. 0600. 1관 디워 (디지탈/12세) 최고급관.

엔터시네마. 총창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판타스틱 4 (12세). 2관 기담 (15세)/다이하드 4 (12세).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앞). 1관 리턴 (18세). 2관 서핑업(더빙) (전제).

무등극장. 총창로 1가 232-9106. 1관 리턴 (18세). 2관 챔피언마법이 (전제)/리턴 (18세).

제일시네마. 총창로 3가 227-1960. 1관 화려한 휴가 (12세). 2관 화려한 휴가 (12세).